

행복한 금요 편지

어머니의 봄날

신성호¹⁾

한선 행복포럼 위원장


B형!, 오늘은 어머니 이야기를 쓸게요.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 어머니는 목수의 아내, 저는 그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셨다지요. 제 어머니는 92세, 아버님은 94세의 노령층 이십니다. 친구들은 말하지요, "너는 행복한 놈이다." 그래요 양친께서 건강하게 계시니 말입니다. 잘 해드린 것도 없고,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건강하게 살아주신 부모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립니다. 항상 옆에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요사이 부쩍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에서 수많은 잔주름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B형! 일흔이 된 이제야 철이 들은 걸까요? 이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인생의 봄날을 추억하고 싶어 몇 자 적습니다.

어머니는 부잣집 셋째 딸이셨습니다. "셋째 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 한다지요" 즉 최고의 신붓감이라는 의미겠죠. 허나 아버지는 평범한 시골목수였습니다. 외조부께서는 그 고을의 부자이며 유지였습니다. 그러나 외조부께서는 아버지의 총명함과 성품을 알아보고 애지중지하는 딸을 가난한 목수쟁이 청년과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대처로 나오셨으며 어머니의 정성어린 내조로 번창해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년 봄, 가을 한두 차례씩 봄꽃놀이 일명 화전놀이를 주관하셨습니다.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던 그 시절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여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

1) 신성호 위원장은 무학여고 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고, 현재는 (사)한국시민봉사회 행복대한민국21 회장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배시시 웃곤 하십니다. 유난이 웃음이 많고, 노래와 춤을 좋아하신 어머니는 언제나 장구잡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춤을 추며, 노래를 멋들어지게 하셨답니다. 그 시절 노래를 흥얼거리곤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한편, 어려운 시절 어머니께서는 지나가는 거지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꼭 밥상에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의 배려하는 그 모습은 천사였습니다.

처녀시절 산으로 들로 나물 캐러 다니시던 추억을 곱씹던 어머니! 지금은 무릎이 좋지 않아 산이나 들에 갈 수 없다고 푸념하실 때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유난히도 웃음이 많은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마실 다니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어머니와 시장이라도 같이 가면 누나 같다는 농담에 금방 얼굴이 붉어지신 어머니의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어머니의 하얀 얼굴에 검버섯이 덕지덕지 피었지만 웃으실 때는 젊은 날의 고운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 더더욱 짝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요사이 귀까지 잡수시어 말을 못 알아듣고 눈만 껌껌하시며 말하는 사람의 입만 쳐다보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미소만 지으신 천사 같으신 나의 어머니, 그 모습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입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108 법문을 드립니다. 자식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하루도 걸은 날이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선생님 된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장이 되었을 때는 기쁨 대신에 겸손하고 조심하라고 엄히 말씀하신 내력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못 걸어도 괜찮고, 귀가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오래오래 사세요. 부모님을 하늘에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계셔서 더욱 행복한 것을 이제야 깨달은 못한 자식이기 때문이지요. 용서하세요.

따뜻한 봄이 오면, 당신께서 처녀시절 살았던 고향 뒷동산, 진달래꽃, 빠꾸기 소리, 보리밭에 숨어 우는 꿩소리, 파란 자우영 뚝방길, 고사리 캐던 산골, 봄 하늘의 종달새 소리가 그리워 자꾸 꿈을 꾸신다는 어머니의 봄날을 동행하겠습니다.

2016. 3월의 어느날 한강변에서!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